

우리 시대의 한국 문학

16

김경린	너의 목소리는 목관 악기 · 13
김광균	수의 · 15
김광섭	성북동 비둘기 · 16
김기림	태양의 풍속 · 17
김동명	파초 · 18
김동환	국경의 밤 · 19
김상옥	주변에서 · 22
김상용	남으로 창을 내겠소 · 23
김소월	진달래꽃 · 24
김억	봄은 간다 · 25
김영랑	모란이 피기까지는 · 26
김용호	한상보 · 27
김현승	가을의 기도 · 28
남궁벽	별의 아픔 · 29
노자영	풀자리 · 30
노천명	사슴 · 31
모윤숙	촌 가게 · 32
박남수	새 일 · 33
박두진	산맥을 간다 · 34
박목월	나그네 · 35
박용철	떠나가는 배 · 36
변영로	생시에 못 뵈을 님을 · 37
서정주	빼꾸기는 섬을 만들고 · 38
신석정	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· 39
신석초	바라춤 · 41
양명문	푸른 전설 · 53
오상순	방랑의 마음 1 · 56

오일도	눈이여! 어서 내려다오 · 57
오장환	나의 노래 · 58
유치환	깃발 · 59
윤동주	서시 · 60
이병기	젖 · 61
이상	오감도 · 62
이상화	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· 71
이용악	국경 · 73
이육사	광야 · 74
이은상	가고파 · 75
이장희	봄은 고양이로소이다 · 77
이한직	풍장 · 78
이희승	박꽃 · 79
장만영	사랑 · 80
정지용	고향 · 81
조지훈	승무 · 82
주요한	불놀이 · 83
최남선	해에게서 소년에게 · 85
한용운	님의 침묵 · 87
홍사용	나는 왕이로소이다 · 88
황석우	봄날의 미풍 · 91
감태준	철쭉꽃 연가 · 92
강계순	동반 3 · 96
강민	물은 하나되어 흐르네 · 98 / 서울의 밤 · 99
강우식	설연집 · 101
강은교	아리랑 · 102 / 일어서라 풀아 · 104

우리 시대의 한국 문학

고은	여름 강가에서 · 105 / 모닥불 · 106
고정희	지리산의 봄 1 · 108 / 상한 영혼을 위하여 · 109
고형렬	장자 · 110
구상	밭일기 4 · 112 / 강 · 115
구자운	귀가 · 116
권달웅	망우리 길 · 117
권오운	동천 · 118
권용태	춘설미음 · 119
기형도	바람은 그대 쪽으로 · 120 / 쥐불놀이 · 121
김경호	사모곡 · 122
김경희	통보 · 123
김관식	병상록 · 124 / 녹야원에서 · 125
김광규	인왕산 · 126
김광림	사막 · 127 / 갈등 · 128
김광협	강설기 · 129
김규동	시인의 검 · 131 / 무등산 · 133
김남조	아가 · 134 / 서녘 · 135
김명수	북두칠성 · 136
김명인	동두천 · 137
김석규	우울한 영혼의 박제된 비상의 꿈 · 138
김수복	노을 속에서 · 139
김수영	푸른 하늘을 · 140 / 말 · 141
김승희	그림 속의 물 · 143
김여정	5월의 비 · 146
김영태	녹차 · 147
김요섭	꽃 · 148
김용택	섬진강 1 · 149 / 섬진강 3 · 150

김원호	한강의 돌 · 152
김윤성	돌 3 · 154
김윤희	희망가 · 155
김정웅	개봉동 일기초—돌아온 일기 · 156
김종길	성탄제 · 157 / 생량 · 158
김종삼	목화 · 159 / 한 마리의 새 · 160
김종철	해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· 161 / 딸에게 주는 가을 · 163
김종해	항해일지 1 · 164
김준태	감꽃 · 165 / 콩알 하나 · 166
김창완	고모 · 167 / 기러기 · 168
김초혜	사랑굿 30 · 169 / 사랑굿 40 · 170
김춘수	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· 171 / 꽃 · 173
김형영	겨울 풍경 · 174
김혜숙	빨래 · 175
김혜순	공룡 · 176
김후란	숲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시각에 · 177 / 조국 · 178
나태주	대숲 아래서 · 179
도종환	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· 181 / 꽃다지 · 182
랑승만	봄 상처 · 183
마종기	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· 184
문덕수	탁자를 중심으로 한 풍경 · 187 / 선에 관한 소묘 2 · 188
문병란	호수 · 189 / 인생 · 190
문정희	곡비 · 192
문충성	한라산 · 193
민영	바람 부는 날 · 194 / 시래기를 말리며 · 195
박경용	빼꾸기 · 196
박봉우	휴전선 · 198 /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· 199

우리 시대의 한국 문학

박상천	관심 밖 · 201
박성룡	차창 풍경 · 202
박시교	바람집 2 · 203
박양균	계절 · 204
박용래	강아지풀 · 205
박이도	빛의 갭부 · 206
박인환	목마와 숙녀 · 208 / 검은 강 · 210
박재륜	청계천 · 211
박재삼	한 · 213 열 몇살 때 · 214
박정남	목민의 꿈 · 215
박제천	연을 띄우며 · 217
박진숙	잠 속에서도 나는 걷는다 · 218
박치원	공휴일 · 219
박태진	어느 성묘 길 · 221
박현령	도시의 불펜 1 · 223
박화목	인형 가게 · 225 / 미소 · 226
박희진	새 봄의 기도 · 227
석용원	돌담 · 228
석지현	새벽 · 229 / 둠레마을 · 230
설창수	개 폐교 · 231
성찬경	사랑사리 · 232 / 동치미 · 233
성춘복	굳은 손으로 · 235
송수권	산문에 기대어 · 237 / 지리산 뺨꼭새 · 238
송 욱	장미 · 240 / 아악 · 241
신경림	과장 · 242 / 산읍 기행 · 243 / 셋김굿 · 244
신달자	네가 눈뜨는 새벽 · 246 / 꽃 · 248
신동문	비닐 우산 · 249

신동엽	달이 뜨거든 · 251 / 그 사람에게 · 252
신동집	목숨 · 253
신중신	투창 · 254
안수환	이야기 · 255
양성우	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· 256
양채영	가을 호수 · 257
오규원	개봉동의 비 · 258 / 시인들 · 259
오세영	모순의 흙 · 260
원구식	군무 · 261
유경환	촛불 한 자루 마주하고 · 262
유안진	갈대꽃 · 263 / 사리 · 264
윤강로	불빛 · 265
윤금초	지노귀새남 · 266
윤석산	책상물림 · 268
이가림	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· 269
이건청	축건 · 270
이근배	냉이꽃 · 271
이동순	대춘부 · 272 / 내 눈을 당신에게 · 273
이동주	새댁 · 274 / 강강술래 · 275
이성교	새벽에 우는 소 · 276
이성복	1959년 · 277 / 그 날 · 278
이성부	Y에게 · 279 / 난지도 · 280
이세룡	세계의 포탄이 모두 별이 된다면 · 282
이수복	아침 · 283
이수익	말 · 285
이승훈	사물 A · 286 / 공포 · 287
이시영	서시 · 288

우리 시대의 한국 문학

이원섭	아침 · 289
이유경	겨울 숲에 선 나무의 전언 · 290 / 우리의 탄식 · 291
이윤택	친체 수업 · 292
이제하	어느 나무 아래서 · 293 / 서해 · 294
이창대	절두산에서 · 295
이충이	먼저 가는 자 빛으로 남고 · 297
이탄	절벽을 보며 · 298 / 빈뜰 · 299
이태수	아침, 장난감 비행기를 타고 · 300
이하석	폐선로 · 301
이형기	바람 한 줌 · 302
인태성	한 방울의 이슬 · 304
장윤우	사진틀 · 306
장호	예감 · 307
전기수	남풍이여 · 308
전봉건	봄에 · 310 / 겨울에 · 311
정공채	갈매기 우는구나 · 312 / 멀리서 온 바다 · 313
정두리	겨울 을숙도에서 · 315
정민호	달력 · 317
정성수	보물섬 · 319
정영일	흰담비와 흰족제비 · 320
정진규	연필로 쓰기 · 321
정한모	새 · 322
정현종	나무의 꿈 · 323 / 느낌표 · 324
정호승	맹인 부부 가수 · 325
정희성	휴전선에서 · 326 / 저문 강에 삼을 씻고 · 327
조병화	낙엽끼리 모여 산다 · 328 / 공존의 이유 12 · 329
조정권	모노크롬의 가을 · 331

조태일	내가 아는 시인 한 사람 · 332 / 어머니 · 334
차한수	함박눈 · 335
천상병	갈매기 · 336 / 귀천 · 337
천양희	정든 땅 언덕 위에 · 338
최명길	산비 · 339
최승자	청파동을 기억하는가 · 340
최원규	달 · 341
최하림	요교리로 · 342 / 정방 폭포 · 344
추영수	기다림 · 345
하재봉	비디오—부재 증명 · 346
하종오	참나무가 대나무에게 · 347
한분순	단상 7 · 348
한성기	역 · 349
허만하	진흙에 대해서 · 350
허영자	긴 봄날 · 351
호소향	월광 소나타 · 352
홍신선	내기 장기 · 353
홍윤숙	뿌리 · 354 / 지상의 양식 2 · 355
황금찬	바느질 하는 손 · 356 / 별과 고기 · 357
황동규	풍장(風葬) 1 · 358 / 더 조그만 사랑노래 · 360
황명	비조의 주소 · 361
황지우	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 2 · 363 / 뱀풀 · 364
황청원	천은사 · 365